

장수산골영화제 16일 개막 학교로 찾아가는 북 콘서트 호응

19일까지 '마을에서 세계가 보인다' 슬로건으로 18개국 24편 국제 공식 선정작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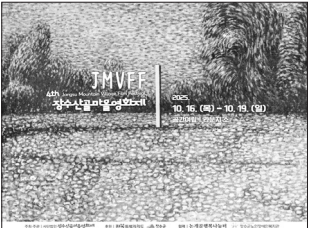
장수군은 천천면 구신마을 한 작은 산골마을에서 세계 영화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제 '제4회 장수산골마을영화제(JMVFF)'가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사)장수산골마을영화제(대표 김소만)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마을에서 세계가 보인다'를 슬로건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시선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이며 관객을 맞이한다.

이번 영화제에는 약 2개월간 173개국에서 총 2,184편의 작품이 접수돼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예비 심사를 거쳐 18개국 24편이 최종 상영작으로 선정돼 관객들은 산골 마을에서 세계 각국의 다채로운 영화들을 만나 볼 수 있다.

개막식은 16일 오후 7시, 장수군 천천면 구신마을의 특별한 공간인 '소막 영화관(라운지 소)'에서 열리며 아프리카 토고의 영화 '센트 두스(CENT DOUZE, 65분)'가 개막작으로 상영된다.

'센트 두스(CENT DOUZE)' 영화는



제4회 장수산골마을영화제(JMVFF) 포스터

112km 길이의 철도 종착역이었던 한 마을에 어느 날 기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지역소멸과 공동체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장수의 산골 마을과도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영화제는 공식 선정작 외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 특별전 4편 △장수 청소년 영상제작 작품 4편 △순창어린이청소년영화제 작품작 2편 △장수사와 40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1편 등 총 11편의 특별 상영작을 마련해 볼거리가 더욱 풍성하다.

김소만 대표는 "자꾸만 작아져가는 장수만의 작은마을 영화제에 173개국 총 2,184편의 많은 작품이 접수돼 17개국의 24편의 작품을 최종 상영작으로 선정했다"며 "세계 여러나라의 다양한 삶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수산골마을영화제'를 통해 특별한 세계 문화 경험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장수산골마을영화제'를 통해 세계의 다양한 삶과 문화를 만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영화를 매개로 한 소통과 교류가 장수군 지역문화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영화제는 기존 '살밭달산골마을영화제'에서 '장수산골마을영화제'로 새롭게 이름이 바뀌었고 '제4회 장수산골마을영화제(JMVFF)' 관련 자세한 상영 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영화제의 공식 홈페이지(jmvf.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아침글방, 동몽의 성독' 성료

장수군,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추진

장수군은 국가유산청의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음 30년, 장수향교와 이를 시간'의 세부 프로그램인 '아침글방, 동몽의 성독'을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세족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침글방, 동몽의 성독'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가유산 체험과 돌봄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장수향교 대성전과 명륜당 등 유교문화의 중심지에서 진행됐다.

학생들은 등교 전 향교에 모여 전통

예절과 인문정신을 배우며 하루를 시작했으며, 단순한 학습을 넘어 지역의 아홉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향교형 돌봄교실' 역할을 수행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유교문화의 기본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무분별한 디지털 문화 속에서 흐려진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되새기며 향교라는 전통 공간에서 우리 문화의 근간을 몸소 체험하는 유산 기반 인성교육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또한 '명륜당 할머니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시니어 돌봄교사들이 참



여하여 세대 간 정서적 교감을 나누었으며, 어르신들에게는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돌봄을 전하는 세대 연계형 모델로의 미래를 더했다.

마지막 세족식 행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여해 아이들이 부모의 발을 씻겨드리며 감사와 효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향교가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닌 가정과 학교, 지역을 연결하는 공동체의 거점으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올해의 책 연계' 최동호 작가 초청 진행

무주군이 14일 "2025 올해의 책 연계, 학교로 찾아가는 북(Book) 콘서트"를 개최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중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지역 내 학생들의 독서문화를 선도하고 인문학적 소양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5 무주군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청소년 부문 도서, "인권을 들어 올린 스포츠 선수들"의 저자 최동호 작가가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동호 작가는 자신의 책에 담긴 이야기와 집필 과정을 소개하고 학생들과 인권의 가치와 스포츠 정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운동과 인권이 연관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재미있었고 스포츠 정신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며 "직접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차별과 환경에 맞섰

던 선수들과 그들로 인해 변화된 세상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입을 모았다.

YTN 기자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최동호 작가는 "인권을 들어 올린 스포츠 선수들" 외에도 "인공지능 스포츠 심판이라면"을 집필했다.

한편, 무주군은 독서 활성화를 위해 군민 추천, 선호도 조사,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상인 부문 "아버지의 해방일지(정지아 작가)", △중고등부 "인권을 들어 올린 스포츠 선수들(최동호 작가)", △초등부 고학년 부문 "티보와 앤(어윤정 작가)", △초등부 저학년 부문 "네 기분은 어떤 색일까니?(최숙희 작가)" 등의 올해의 책을 선정했으며, 선정 도서를 중심으로 '북콘서트'와 '독후감 공모전'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풍당풍당 족욕소풍 '미리 할로윈데이' 진행

진안군이 오는 18일~19일 2일간 마이산 북부 야외족욕장을 중심으로 풍당풍당 족욕소풍, 10월 특별행사 '미리 할로윈데이'를 개최한다.

마이산 북부 야외족욕장에서는 매일 새로운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으며 이번 10월 특별 행사는 할로윈 데이를 주제로 △할로윈 코스튬 대회 △어린이 쿠팡클래스 △신비한 키즈 콘서트(마술&버블쇼) △할로윈 타로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행사는 양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일부 행사는 SNS 등을 활용해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된다.

또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국화·장미 족욕장 운영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족욕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이산 북부 상가연계 이벤트 △홍삼테마존이도 무료 시음 △'풍당 네트' 포토 이벤트 등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지난 7월 개장한 마이산 농촌테마공원 내 야외족욕장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신동진 벼' 재배 농가 종자 확보 당부

진안군은 2026년도 '신동진 벼' 정부 보급종 공급량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품종을 계속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자가 채종또는 농가 간 자율교환을 통한 종자 확보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신동진 벼를 대체할 새로운 보급종 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2026년도 신동진

보급종은 품종 전환기에 따른 공급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안정적인 종자 수급을 위해 농가 스스로 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가채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진안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진안군은 15일부터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2025~2026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접종은 10월 15일부터 진안군의료원을 비롯한 8개 위탁의료기관에서 먼저 시작되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은 지난 9월 22일부터, 임신부 대상 접종은 9월 29일부터 시작됐으며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접종도 10월 15일부터 접종이 시행된다.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접종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대상 확인 서류(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해야 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소방서, 119 구급상당 서비스로 의료 공백 해소

일상생활 중 갑작스러운 질병 발생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 방문 여부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국민 없이 119로 전화하여 의료 전문가의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요원들이 연중 무휴 24시간 근무하며, 응급처치 지도 △질병 증상 상담 △야간 병원 · 약국 안내는 물론, 재외국민을 위한 응급의료상담 서비스(+82-44-320-0119)도 운영 중이다.

이용 방법은 119에 전화해 '응급상담을 원한다'고 말하면, 상담요원에게 연결되어 필요한 응급 정보나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자 안내도 가능하다.

음성 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은 '전북119상담록'을 통해 편리하게 119 구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